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평가 A등급

시설·환경 및 재정·조직 운영·이용자의 권리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평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1회씩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환경,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등 상대적으로 배점 비중이 높고 지표 수가 많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평균 등급 A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직영 체제로 운영 중이며,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장애인, 여성, 노인, 평생학습 등 교육

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능을 보강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를 높이고 관련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용이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애숙 관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복지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주민, 관련 기관의 관심과 지원, 전 직

원의 열정이 빛어낸 결과”라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치매로부터 안전한 장흥 만들기” 치매 인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4개 치매안심마을과 각 경로당에 파견되어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할 예정

장흥군은 지난달 25일 치매로부터 안전한 장흥을 만들기 위한 치매 인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장흥군은 60세 이상 인구 16,645명 중 치매 환자가 1,823명으로 10.95%를 차지하고 있다.

두뇌 훈련 레크리에이션, 치매 인지활동 워크북을 활용한 교육을 받은 치매 인지도자들은 장흥읍 행원마을, 용산면 모산마을, 회진면 대리마을, 장평면 청용마을 4개 치매안심마을과 각 경로당에 파

견되어 지역 주민에게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가 마을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장평면 청용마을이 선정됐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인지, 물적, 제도적으로 치매 초기부터 중증 단계까지 치매 안심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며 “치매 환자 가족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흥,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살기 좋은 치매 안심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함평군, 노인 자살예방사업 ‘내·안·애(愛)’ 운영

관내 7개 대상 마을 선정...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함평군은 65세 이상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노인 자살예방사업 ‘내·안·애(내가 안아주고 사랑할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 증상이 확산되면서 전국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전년 대비 1.3명 증가했다.

이에 함평군은 최근 정신건강증진센터 데이터를 토대로 관내 7개 대상 마을을 선정,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살 및 코로나19 관련 설문, 노인우울 선별검사, 삶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사전 실태 조

사를 실시했다.

군은 사전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1:1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노화에 대한 인식 ▲우울과 수면 ▲우울과 통증 ▲우울과 규칙적 생활 ▲행복한 노년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집중적인 홍보 및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정신건강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보성군, 복지사각지대 이웃 위해 ‘여성봉사회’ 나섰다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봉사 실시

보성읍여성자원봉사회와 별교여성자원봉사회는 5월24일과 25일 각각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봉사를 실시했다.

보성읍여성자원봉사회는 취약계층 40가구에 열무김치, 깍두기, 장조림 등으로 구성된 밑반찬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 살피기 봉사를 병행 추진했다.

별교읍여성자원봉사회도 멸치볶음, 열무김치, 깍두기 등 직접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 가정 50여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보성읍여성자원봉사회 유용순 회장은 “이웃에게 온정을 느끼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별교여성자원봉사회 김미숙 회장은 “매년 함께하는 활동이지만 코로나19 모

두가 어려운 상황에 작은 나눔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